



아름다운 인연

저는 예순 중반으로 곧 정년을 앞둔 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제가 사람답게 살고, 교수까지 될 수 있었던 사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아주 가난했고, 부모님은 여자애는 살림하면 되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에 흥미가 많아 몰래 학교 창문으로 한글을 익히고 산수를 공부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잡혀와서 혼썰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 제 삶에 변화가 온 건 젊은 여선생님이 오시고부터였어요. 시내에 있는 유일한 중학교에 부임하신 선생님은 제가 산기슭에서 쫓을 뜬다 말고 누가 놓고 간 책 읽는 걸 보시고 저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정아, 지금 당장은 이게 쓸모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도움이 될 날이 올 거야.”

그 선생님도 공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공부해서 선생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밤마다 몰래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선생님 댁에 가서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중학교과 정도 났었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켜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짹짹 비는 저를 보며, “남이 부모가 못 시켜주는 걸 다 해주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냐?”라며 몰래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공부한 끝에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엄마를 만나셨어요. “어머니, 이런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부디 어머니께서 순정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엄마는 저를 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빠 몰래 집안일 하는 시간을 빼주셨고 문제집 살 돈도 주셨어요. 그 돈이 충분치 않아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와 선생님께 보답하고자 하루 열 시간씩 공부했고,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셨고 선생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는 어디 여자애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냐며 펄펄 뛰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가출을 결심했죠. 새벽에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나와 계신 것이었어요. “순정아,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집을 나가니? 돌아가자.” 저는 결국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신 건지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서울에서 1등만 한다고 하는 애들도 떨어지는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순정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간곡한 설득 덕에 결국 아버지는 저를 서울로 보내기로 하

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선생님 은혜를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1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선생님을 찾아 중학교로 갔더니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결핵에 걸리셨고, 요양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온 저는 자취방 책상 앞에 앉아 결심했어요. ‘그래,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살자.’ 저는 정말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인턴 후 봤던 시험도, 레지던트 4년 후 봤던 내과 전문의 시험도 모두 한 번에 합격했고, 미국으로 연수도 다녀오고,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순환기 내과 교수가 되었죠.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두었어요. 선생님을 떠올리며 딸 이름을 선생님과 같은 선희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마음 넓고 예쁜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딸이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죠. 딸은 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 달라고 했습니다. 사뭇감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사실 저는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딸이 원하니 만났습니다. 사뭇감은 아주 선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고등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칠 생각인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하고 유학을 갈 계획은 없고?”라고 하자, 그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데에는 저희 큰어머니 영향이 큼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뜻을 가졌더니 할 말이 없었죠. 제가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그 청년의 마음가짐 하나만 보고 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죠.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카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쪽을 보니 저보다 한 열 살은 많으신 것 같은 여자분께서 우아하게 머리를 틀어올리시고 앉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어디서 본 것만 같아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저를 본 여자분도 한참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한참을 바라봤구요. 아무래도 낮이 익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유선희 선생님?”라고 하자 그분도 “너, 순정이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이런 데에서 만나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그리고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예약자 이름을 보더니 놀

라시며, “니가 선희 엄마였니?”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딸을 아시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바로 제 사위의 큰어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위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상견례가 끝나고 저와 선생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 요양을 마치고 다시 교사를 하며 결혼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폐가 안 좋아 학교를 그만 두고 집에서 지내시다가 가끔씩 남편이 경영하는 한정식 식당에 나와서 카운터를 봐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간 날이 시조카 상견례여서 제 딸도 보고 저희 부부도 볼 겸 나오셨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순환기 내과 교수라고 하자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는 꼭 해낼 줄 알았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손을 꼭 잡고, “이제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라고 물었더니 다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의사가 워낙 그 계통에 유명한 교수라 그런지 두 달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호흡기 쪽의 내과라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짹 돌렸어요. 그리고 대학병원 내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이 VIP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했죠. 검사 결과 선생님의 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암의 소견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몸이 많이 약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워낙 초기였고 표적 항암약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바로 제가 주치의가 돼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선생님도 그동안의 치료로 많이 좋아지셔서 곱게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오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사위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닮고 싶어 하는 큰어머니, 유선희 선생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자네는 더 훌륭한 제자를 많이 만들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딸과 사위가 우리 부부와 사돈 부부에게 차례대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 앞에 갔죠. 그리고 선생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시골 아이를 이렇게 의사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런 선생님이 제 사돈 큰 어른이 되어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사돈 내외도 저의 사정을 잘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딸의 결혼식을 올음 바다로 만들어 너무 미안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십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 하시네요. 저도 그럴 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개신교는 천주교의 작은 집?

기독교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출신으로 천주교의 사제였다. 루터가 천주교를 떠나 개신교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말하며 마치 천주교는 큰 집으로, 자칭 개신교는 작은 집으로 가르치나 이 가르침은 천주교의 주장일 뿐이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때 시작된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의 성례 전과 죄 사함, 행위 구원, 면죄부에 의한 죄의 경감이나 구원, 사제를 통한 고해성사와 같은 잘못된 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선포한 것이다. 결코 율법이나 할례, 희생 제사,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주신 것을 마틴 루터가 선포하게 된 것이다(롬3:24).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이루신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함과 같이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의란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어 주심으로 죄가 도말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자 의인’이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을 가르친 것이다. 루터에 의하여 없었던 새로운 기독교가 생겨서 작은 집이 된 것이 아니라 루터가 천주교의 사제로서 성령으로 성경을 깨닫고 천주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개종한 것이다. 당시에 개신교는 천주교의 껍박 때문에 지하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킨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와 생긴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승호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
(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6월 2일 (제125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봉우컬럼

기도가 답이다

가끔 정부 여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이 나를 찾아온다. 정계에 진출하라거나 아니면 현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일에 동참해달라는 요구다. 나는 둘 다 단호히 거절한다. 내가 이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는, 아니 우리 교단은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그들과 다를 뿐이다.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다. 정계에 직접 나가는 것보다,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통치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11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가졌던 이유가 그것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딤후2:1~2).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이 정부를 잘 이끌도록, 그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가 대사를 그르치거나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국제외교문제에 있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신다.

이 나라는 어느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양분된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이고, 우리 후손들이 세대를 이어 살아 가야 할 터전이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애국이다.

나는 지구를 150바퀴 넘게 돌았다. 그들 중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개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국가 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가 우선이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니깐.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이 평화를 지속하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더욱 합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자.

모기를 우습게 알면 죽는 수가 있다

알다시피 우리 해외집회는 대부분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아프리카 집회에 갈 때는 황열병, 말라리아 등의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출국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그런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약간 불감증이 있는 듯하다.

남미 쪽 집회에 가서 숙소에 들어가 보면, 물론 대도시의 고급 숙소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곳이 보통 지방 소도시인 경우가 많아서 한국으로 말하면 여관급 숙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독약

니 보통 모기가 아닌 듯싶었다. 거의 종기처럼 부어올라 급히 후안이 약을 구해주었는데 이게 너무 독한 약이었나보다. 그 후유증으로 한참을 고생하시고 귀국 후 상처 하나하나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 지극히 작은 모기지만, 이를 우습게 알다간 큰코다친다. 간혹 모기에 물려 사망했다는 뉴스도 여름이면 심심찮게 나오지 않던가.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농부가 잡초를 없애기 위해 잡초와 싸우듯, 우리는 귀신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농부가 잡초를 우습게 알다간 농사 다 망칩니다. 그래서 농부는 1년 내내 잡초

아닙니까?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마10:1). 그리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사 새벽 미명에, 밤에, 밤이 맞도록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곧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으셨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마9:29). 내가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그것도 귀신이에요?’하며 속아서 번번이 당하는 겁니다. 적이 달려드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2007년 과테말라 말라카탄 집회 광경

냄새가 진동한다. 무슨 약품을 쓰는지 별레보다도 그 냄새에 진저리가 쳐져 제발 약을 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복불복인지라 다행히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멕시코(Mexico) 알바라도(Alvarado)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반대인지, 벼룩인지가 벼룩벼룩하여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리 쪽에 벌건 반점이 수두룩하고 여간 가려운 것이 아니었다. 아침식사 자리에 만난 일행들을 보니 목사님부터 다들 장난이 아니다. 부랴부랴 현지인에게 부탁하여 약을 사다 바르고 뿌리고 했던 기억이 난다. 더 심각했던 건, 과테말라(Guatemala) 집회 때다. 집회를 배설했던 후안(Juan)네 집에서 지냈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목사님이 모기에 물리셨는데 상태를 보

와 싸웁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골라내고 갖은 정성을 다해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감기쯤이야 하고 우습게 알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감기로 그렇게 많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알다가 정말 큰코다칩니다.

나는 마귀와 귀신을 잘 압니다. 그놈들이 구수회의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귀신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압니다. 그 악한 영들의 목적은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트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보여준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였고, 당신 스스로 3년의 공생애 기간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신 것

가릴 게 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야죠. 제발 부탁인데 복잡하게 생각 말고, 아침에 일어나 방언기도하고 거울 앞에 가서 눈을 보며 귀신을 쫓으세요. 우리는 명령권자의 명령을 수명하여 집행하면 그만입니다. 사후 책임은 명령권자가 지는 겁니다. 귀신 쫓으라 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결과도 그 분이 책임지신다 이겁니다. 내 목회 40년이 오늘에 있는 것은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르고 무식하고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육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야 할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전주 실내체육관집회

일시: 2024년 6월 6일(목)~7일(금), 저녁 8시

장소: 전주실내체육관

문의: 02.533.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9:9)



거짓말은 나를 죽이는 마약이다

아마 제 둘째 아들 녀석이 중학교에 다닐 때인가 봅니다. 그때는 매주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던 시절이라 월요일이면 보따리를 싸서 나갔다가 금요일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부흥회를 마치고 막 집 앞에 도착했는데,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 우리 집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그 아저씨를 불러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물어보니, 둘째 녀석이 비디오테이프를 빌렸고, 아저씨는 그것을 수거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서니 둘째 녀석이 달려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호규야, 누가 왔다가셨냐?” 물으니 “아, 슈퍼마켓에서 배달 왔대요.”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4개월 동안 둘째 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 다. 한마디로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했고, 옆을 지나가도 못 본 척했습니다. 나중에 그 녀석이 하는 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때리세요.” 하더라고요. 어쨌든 녀석은 그 후로 다시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뭐, 애들이 크면서 그 정도 거짓말은 할 수도 있죠. 너무 심했던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이 되고, 그것은 마치 산 위에서 굴린 자그마한 눈덩이가 점점 커져 아랫마을을 덮치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 결국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심할 정도로 벌을 가한 것입니다.

진실은 우주를 뛰어넘는
만국 공통의 화폐다

요즘 향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어느 트로트 가수입니다. 본시 그의 죄목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하루아침에 그를 나락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그 마약이 인생을 흡입해버리듯, 거짓말이 인생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아예 손조차 대지 말아야 하듯, 거짓말도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게하시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 우리 주인 엘리사가 보냈다고 하며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취해 집에 감춥니다.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

다는 듯 엘리사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네가 어디서 오느냐?”고 묻습니다. 게다가 알고 둘째 녀석에게 물어본 것과 같지요. 그러자 게하시의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왕하5:25). 이렇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어찌 되었습니까? 나아만이 들었던 문둥병이 자신과 자손에게까지 옮기는 저주를 받았습니다(왕하5:20~27). 여러분, 거짓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텐동산에 뱀, 곧 사단이요 마귀(계20:2)란 놈이 하와를 어떻게 꼬였습니까? 거짓말로 꼬였습니다.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되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못 먹게 한 거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꾀에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창3:4~5).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자들, 다 마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자식으로 두지 않고 그들을 내치시며, 하나님의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계22:15). “나 주 여호와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렘13:8).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싫

어하시기 때문입니다(잠6:16). 그래서 거짓말을 한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내치셨고(창3), 아간을 돌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수7:25), 거짓말로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치셨던 것입니다(행5:1~11).

대신 진실된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잠14:9).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잠2:7). 구원을 얻게 하시며(잠11:6), 장막이 흥하게 되며(잠14:11), 높은 곳에 거하고, 그 양식이 끊이지 않으며(사33:16), 주의 장막

에 거하며(시15:1),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시84:11), 흑암 중에도 빛을 발하게

하신다(시112:4)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서서도 안 됩니다. 십계명 중 제9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출20:16)고 말씀했고, 그런 자는 패망하고(잠21:28) 벌을 면치 못한다고(잠19:5)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거하는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의하나 나봇은 이 포도원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매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섭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곳의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봇을 제거할 행동 지침을 하달합니다. 두 명의 거짓 증인을 통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봇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 당시 관습대로 대역죄로 처형된 사람의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었기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은 진노하셨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아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했습니다(왕상21:19). 마태복음 26장에도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지 않습니까(마26:59~61)?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있습니다. 에스겔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렘13:19)라고 분을 내셨고, 그들의 결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20:10).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고 걷는 아이가 없듯 실수와 잘못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장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서는 됩니다. 거짓말은 정말이지 잠깐동안일 뿐입니다(잠12:19).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온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짓은 어두움이요
진실은 밝은 빛이다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얼른 자복하는 게 상책입니다. 십여 년 전 제 회갑연을 인천교회 장로들이 열어줬습니다. 당시 제가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는지라 우리 장로들이 포도주를 한 잔 제게 권하며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셨는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졌고, 성도들 간에 시시비비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정직하기로 결단하고 주일에 단에 올라, “저, 술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되레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직은 우주를 뛰어넘는 만국의 화폐요, 그것이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가 당신을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해도 이익 좀 더 챙기려고 거짓되지 말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웁처럼 정직을 다짐하십시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꾀함을 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욥27:4~6).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내가 만든 내 인생

오늘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만든 작품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를 존중하신다. 당신 뜻대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 의지를 점검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각자가 만드는 자작품인 것이다.

창세기 45장 10~20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나온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요셉의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하고, 일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와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라고 한다. “애굽 땅의 좋은 것들이 다 너의 것이라”(창45:20). 바로가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요셉이 바로와 풍년 7년, 흉년 2년, 약 9년 동안에 함께 지내면서 만들어놓은 관계다. 요셉의 자작품이다. 그가 고향 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노예 생활 중에 보디발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가 된 것도, 누명을 쓰고 옥에 있을 때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 열쇠 꾸러미를 받은 자가 된 것도 모두가 요셉 자신의 삶으로 만든 것이지 보디발이, 간수장이, 바로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그가 가나안 땅 헷족속 사이에 나그네로 우거하다가 아내 사라가 죽어 매장지가

필요할 때, 그의 주변 헷족속 사람들은 이 구동성으로 당신은 ‘우리의 주요 방백’이니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무상으로 장지 삼아 장례를 치르라’ 한다. 누가 만든 삶인가? 이곳 이웃 헷 족속들이 착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그의 삶으로 만든 자작품이다.

사무엘상 29장에 다윗도 마찬가지다. 사울의 낮은 피해 블레셋에서 망명살이를 하던 차에 블레셋 왕인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살아보니 지금까지 너는 정직하고 악이 없고, 내 목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다.” 하였다. 다윗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만든 자작품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내 모습은 전적으로 내가 만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내 삶에 적응해준 것뿐이고, 나의 진짜 모습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탓, 아내 탓, 형제 탓, 친구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보자. 누구든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을 신뢰와 존중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가인, 아간, 고라, 발람, 사울 왕,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망가뜨릴 수도 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가정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희망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큰 기대를 갖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다윗을 아들 명단에서 삭제했고,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위문 왔던 다윗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며 야단을 쳤다. 다윗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라지 못한 왕따였다. 그런데 다윗은 어른이 되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시133:1)이라고 고백하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도대체 다윗의 성장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던 것일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의 삶은 피곤하고 고달팠다.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를 찾아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 중노동이었다. 뜨거운 태양에 그을려 검게 탄 얼굴과 양들과 생활하느라 더러워진 누더기 겹옷을 걸치고 달려왔던 목동 다윗을 처음 본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얼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그의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삼상16:12). 이 문장은 실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빼어나고, 눈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어서 다윗의 얼굴보다 ‘눈’이 강조되어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열정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었다.

누가 왕따로 살았던 다윗의 눈빛을 자신감 넘치고 사랑받은 아이의 눈빛으로 바꾸었을까?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에서 그 힌트를 얻는다.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주님의 여종’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어머니였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이 아닌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 심어놓은 한줄기 희망은 무명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한 줄기 희망을 심어놓으셨다. 바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다! 다윗에게 ‘주님의 여종’이라 불린 어머니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행7:46) 다윗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이정금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기쁨과 감사의 신앙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 주 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며,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한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한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먼저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한다. 그러할 때 염려가 없어지고 감사하게 되며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교훈한다(빌4:4~7).

다윗을 보라!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하의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더니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 증거한다(삼하6:15~21).

우리 목사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찬양하시는 모습에 하나님이 능력과 건강으로 잡아 주심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김상욱 목사



:: 낮은 울타리 ::

함께 동역하는 기쁨

5월의 노랑진 교육관은 참 바쁩니다. 서울 대학부는 5월에만 세 가지 행사를 준비했는데, 덕분에 교육관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남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도 저녁이 되면 교육관으로 모이고, 새벽까지 교회와 부서와 영혼들을 위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연극을 준비하는데 소품들을 옮겨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이 새벽에 시작하는 것이라 누구에게 선뜻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새벽 봉사자를 구한다는 말만 남겨놓고, 안 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리허설 시간에 가까워지자 하나둘씩 모여더니 카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다 올지 몰랐던 건지 서로 신기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더욱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한 동역자에게 사진 찍을 때 사용할 소품을 담당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적당한 것을 찾아 구매만 해

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는 동대문에 가 직접 재료를 구했고, 혼자 새벽에 교육관에 남아 꽃잎 하나하나를 잘라 붙이며 아름답고 풍성한 소품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묵묵히 밤새 그 작업을 했을 동역자를 생각하니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나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헌신하다 문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옆에서 묵묵히 당연하게 헌신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그래 이게 맞지’하는 위로와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동역자입니까? 동역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일하다, 함께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주의 일에 함께 마음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다. 더 값지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4:9).

장수정